

陽 地 쪽

저쪽으로 黃土실은 이땅 봄바람이
胡人의 물레바퀴 처럼 돌아 지나고,
아롱진 四月太陽의 손길이
벽을 등진 설은 가슴 마다 울울이 만진다.

地圖찌기노름에 너땅인 줄몰으는 애 둘이,
하룻손가락이 짧음을 限함이며,

아서라! 갓득이나 열븐平和가,
깨어질까 근심스럽다.

一九三六봄想、6、26

양지쪽

저쪽으로 황토 실은 이 땅 봄바람이
호인의 물레바퀴처럼 돌아 지나고
아롱진 사월 태양의 손길이
벽을 등진 설은 가슴마다 울울이 만진다.

지도찌기 놀음에 뉘 땅인 줄 모르는 애 둘이
한뼘 손가락이 짧음을 한함이며.

아서라! 가뜩이나 엷은 평화가
깨어질까 근심스럽다.

1936. 6. 26.